

범죄피해자에 '희망의 싹'
광주지검, 지난해 10억 지원

A 씨는 B 씨가 휘두른 깨진 맥주병에 눈을 찔려 우측 안구의 시력을 상실했다.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A 씨는 부상으로 인해 사실상의 경제적 활동이 어려웠다. 광주지검과 범죄피해지원센터는 A 씨의 이 같은 사정을 파악, 긴급 지원금으로 1338만여 원을 건넸다. 두 차례 심리 상담도 가졌다. 장해등급이 확정된 뒤에는 심의를 통해 장해구조금 3515만여 원을 A 씨에게 지원했다.

일가족 살해사건의 유일한 유족 C 씨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지원 신청 기간 만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6월, 광주지검 피해지원실은 지원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C 씨의 사정을 파악했다. 광주지검은 C 씨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한 뒤 유족구조금 1855만9380원과 장례비 900만 원을 건넸다.

광주지검(검사장 양부남)과 사단법인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이은열·이하 지원센터)는 지난 한 해 범죄피해와 관련, 28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에게는 구조금·경제지원금·심리치료비 등 총 10억3640만1979 원을 지원했다.

광주지검과 지원센터는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범죄피해자 구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 광주 스마일센터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634건의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했다.

4명의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도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매일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 지원 방안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재판 때 법정에서 동행하거나 재판 모니터링도 실시 중이다.

반찬 봉사나 김장 봉사, 가정폭력 피해자 헌불 지원, 힐링캠프를 통한 피해자 심리 강화, 광주지검 1층에 운영 중인 희망카페 채용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검과 지원센터는 올해도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과 치유, 일상으로의 복귀 및 재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 지원·보호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며 지역 각계 각층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2005년 1월 문을 열었다. 살인·상해·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곳 지정

학생 진로 따라 다양한 과목 이수...“고교 학사·대입 제도 혁신 선행돼야”

전남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연구학교 4곳과 선도학교 2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2020학년까지 3년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고는 중마교와 장흥교 2곳을 연구학교로 지정했고 강진교·해룡교는 선도학교, 특성화고에서는 순천 효산교와 목포 성신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했다.

연구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며 현장 평가제도 등 학사제도 전반

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또 교원수급, 시설 등 소요 인프라 분석 등의 과제도 수행한다.

연구학교는 1곳당 4000만원, 선도학교는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연구학교에는 2018학년도에 교과과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특성상 학생 선택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이를 위해 해남교와 순천여고에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경제 법과 정

치, 물리II, 화학II를 각 2단위(3시간)씩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한다.

또 연구·선도학교 대상 컨설팅, 수강신청 시스템 및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단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윤성중 과장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사제도 전반을 혁신하고 대입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력거래소, '청년일자리 창출' 빗가람 학점과정 운영

내달 2일까지 4주간...수료생 20% 취업에 성공



11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개설한 '제2기 빗가람 학점과정'이 오는 2월2일까지 4주간 운영되는 가운데 전남대 등 11개 대학 졸업생 54명이 입교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제2기 빗가람 학점과정'을 오는 2월2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기

과정이 개설됐으며, 수료생 20%가 취업에 성공했다.

지역인재를 중심으로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목적으로 전력거래소, 한진KPS, 한진KDN 등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직무능력 중심의 오픈캠퍼스로 운영되는 올해 빗가람 학점 과정에는 전남대 등 11개 대학 졸업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2기 과정에서는 전력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 직무교육과 전력시장,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의 고유 직무관련 교육을 비롯해 한진KPS, 한진KDN의 직무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또 전력설비 현장견학, 에너지 신산업 분야 외부전문가 강의, 취업과 관련된 직무 중심의 채용 특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지원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춘정 기자

전남농협, 폭설지역 비닐하우스 농가 현장 점검

"장비·인력 적극 지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와 무안 삼향농협(조합장 나용석)·농협 무안군지부(지부장 김봉기)는 11일 사흘째 계속된 폭설에 불안해 하고 있을 관내 비닐하우스

시설농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전남농협은 이날 무안군 삼향읍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나용수 씨 비닐하우스 시설농가를 방문해 폭설 대비 상황을 점검 했다.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 나용수씨는 "제설작업으로 아직까지는 폭설

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밤새 더 많은 눈이 내리면 하우스 파손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연초부터 폭설로 인해 관내 농가들의 걱정이 매우 많다"라며 "전남농협은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동구,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 모집

광주 동구는 오는 17일까지 2018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생활체육교, 정구, 게이트볼, 기체조 등 12개 종목 21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생활체육 종목 현장지도가 가능하고 생활스포츠지도사 및 정문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주 2회 이상, 월 1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21명이며 종목은 지도자가 지역별 특성과 장소에 적합한 종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서구,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광주 서구는 추운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나섰다.

복지통장, 동보장협의체 위원, 희망지킴이, 희망기동대, 희망배달통 등 여러 기관을 총 동원하여 2월말까지 집중 발굴한다.

특히, 1인가구 고위험 가구, 긴급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노숙인, 아동,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며 조사결과에 따라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남구 "집에서 잠자는 책, 읽고 싶은 책으로 교환"

광주 남구가 독서의 소중함을 느끼고 현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올 한해 도서교환의 날을 운영한다.

11월 남구에 따르면 책을 교환할 수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로 이날 구청 또는 구립도서관인 문화정보도서관,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으로 책을 가지고 오게 되면 도서 교환신청 1권당 다른 도서 1권으로 바꿀 수 있다.

해당 도서관에 마음에 드는 책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달 또는 그 다음의 기회에 자신이 원하는 책으로 교환할 수 있는 도서교환 쿠폰으로 받을 수 있다.

북구, 운암마을 사랑방 마을학교 운영

광주 북구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학교를 운영한다.

북구는 오는 16일부터 운암동에 거주하는 주민 20~30명을 대상으로 운암시장 주변 쇠퇴한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을 위한 '제1기 운암마을 사랑방 마을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마을학교는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대가 함께하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의 이해를 높이고 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대가 함께하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매년 1억원씩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 운암시장 주변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역리더 및 마을코디 육성, 마을공동체 운영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산구, 교육부 자유학기제 유공기관 선정

광주 광산구가 '교육부 주관 2017년 자유학기제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유공기관에 선정된 광산구는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광산구는 청소년이 자신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서고,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과정을 목표로 삼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일선 학교에 제공했다. 특히 예술과 놀이를 접목해 청소년의 호응을 이끌고 학습효과를 배가한 점이 교육부의 주목을 받았다. 광산구는 지난해 △찾아가는 예술볼터-골링놀이 △찾아가는 예술볼터-행동프린트 △소셜디자인 진로·직업 체험 등 127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 인 설 립 ■기 장 대 리
■양도상속중여 ■건설면허신청
■기 업 진 단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동센터
30동 217호 (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